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5:17)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행복해보이십니다. 오늘도 새 은혜 받으시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에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 변화된 모습을 점검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시작하도록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하듯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신앙생활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작도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 어느 부모, 어느 선생, 어느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제대로 시작을 잘하면 제대로 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답을 얻고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4시간 활동하고 있는 사탄

사탄은 쉬는 시간, 휴가, 월차도 없이 활동하면서 사람을 실패시키고 고통을 가져다줍니다.

(1) 그러나 사탄은 이미 머리가 깨졌습니다.(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인 사탄을 십자가에서 박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힘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사탄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무서워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12: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3장에 등장한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2) 그리고 사탄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창3:1-6)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임수로 인간을 속이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속일수도 있습니다.(창3:6) 또한 사탄은 확신이 없는 사람을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벧전5:7-8)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여 현실문제에 낙심하게 하여 주저앉히고 힘이 쭉쭉 빠지게 만듭니다.(고후4: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고 사람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명예, 자리, 이성, 권력, 친구, 일 등이고, 어떤 사람은 집착하는 것(게임, 도박, 영화, 드라마, 스포츠, 스크린)들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엡6:10-20)

(3)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떠나갑니다.(행16:16-18)

사탄은 복음이신 예수그리스도 앞에서는 힘을 전혀 쓰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며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름입니다.(요17:11-12) 그리고 모든 만물과 사탄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빌2:9-11).

(4) 사탄은 말씀을 가지고 명령할 때 떠나갑니다.(마4:1-11, 마8:16-17, 계12:9-11).

사탄이 가장 힘을 쓰지 못할 때가 말씀을 가지고 명령할 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명령할 때 깜짝 놀라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관련 성경구절을 항상 준비해서 평상시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말씀 성구를 가지고 사탄에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을 받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문제 때문에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새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1) 먼저 주인에게 맡겨야 합니다.(빌4:6-7, 벧전5:7)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아직도 주인을 바꾸지 않아서 내가 주인노릇 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인지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문제를 맡겨보십시오. 이때부터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일을 처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며, 24시간 내내 지켜주십니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인간이 참 주인을 모를 때 어떻게 될까요?(사1:3) “소는 그 임자를 알고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주인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잠3:5-6), 실패하는 사람들은 나의 처지와 입장과 어려운 현실만 부각을 시키고 인정하며 힘이 빠지지만, 응답받는 사람들은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삽니다.

(2)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요6:68)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히6:18),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고전4:6). (요6:6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떠날 때에 예수께서 열두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말씀을 선택했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가 될지언정 분위기, 감정, 환경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렘33:1-3)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갈등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오히려 일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깔끔하게 일이 처리되고, 후유증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면 생각에 깊이 빠져 들지 말고, 깊은 기도 속으로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집착하는 것은 병이 되지만 집중은 힘을 얻게 만듭니다. 절대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지도 말고. 현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로 현실의 벽을 뚫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 전도로 주위를 살려야 합니다.(고전9:16)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저는 전도는 사명이 아니라 나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를 안 하면 화가 미친다는 말은 내 주변이 흑암이 가득해지면서 사건, 사고들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조금만 고민하면서 시간표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재앙이나 복음이나 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24시간 활동을 하면서 인간들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결론> 금주의 포럼 주제

- (1) 사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해야 떠나가는지 기록해보십시오!
- (2)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취약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기록하고 싸우십시오!
- (3)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록해보십시오!